

발디비아 ‘멀티 극장골’ 작렬…전남 3연승 질주



K리그2 33라운드 경남에 3-2 승…시즌 첫 3연승
승점 55점 3위 수성…2위 수원삼성 5점차 추격

‘캡틴’ 발디비아 멀티골을 장식하면서 전남드래곤즈의 시즌 첫 3연승을 이끌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33라운드 경남FC 원정 경기에서 0-2 승부를 뒤집고 3-2 역전승을 기록했다. 31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3-2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이룬 전남은 천안시티FC전 4-1 승리에 이어 3연승에 성공했다. 이날 승리로 15승 10무 8패(승점 55)가 된 전남은 부천FC 1995(15승 8무 10패)를 따돌리고 3위 자리를 지켰다. 또 1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70)에 1-1 무승부를 기록한 2위 수원삼성(승점 60)을 5점 차로 추격했다. 전반 5분 유지하의 슈팅을 시작으로 전남이 경남 공략에 나섰다 선제골은 경남의 몫이었다. 전반 38분 경남의 코너킥 상황에서 브루노 코스타가 왼쪽에서 띄운 공이 전남 김경재 맞고 흘렀다. 문전에 있던 경남 이종민이 오른발 슈팅으로 전남 골대를 갈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남이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기록했다. 전남 진영에서 공을 쳐내려던 김경재가 단레이를 발로 차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

로 나선 단레이가 오른발로 가볍게 공을 때려 경남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전남 김현석 감독이 공격 강화를 위해 후반 8분 김경재를 빼고 최한솔을 투입했다.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16분 최한솔의 전방 패스와 함께 전남의 반격이 시작됐다. 패스를 받은 정지용이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중앙에서 달려들던 호난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골키퍼 최필수와 마주한 호난이 상대 수비진의 압박까지 뚫고 추격을 알렸다. 끝까지 공을 간수한 호난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다리 사이로 흐른 공은 그대로 경남 골망을 흔들면서 1-2가 됐다. 후반 45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골이 나왔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정지용이 박스 안까지 진입한 뒤 컷백으로 문전에 있던 발디비아에게 공을 넘겼다. 정지용에게 시선이 분산됐던 상황, 발디비아가 왼발로 침착하게 골대를 갈랐다. 발디비아의 시즌 13호골. 발디비아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52분 알베르피의 힐패스를 받은 발디비아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포물선을 그린 공은 그대로 경남 골대 왼쪽을 뚫었고, 전남의 3-2 역전승이 완성됐다.



전남드래곤즈의 발디비아가 지난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앞선 천안시티FC전에서 1골 2도움의 활약으로 4-1 승리를 이끌었던 발디비아는 뜨거운 화력을 이어가면서 MOM(Man of The Match)으로 이름을 올렸다.

발디비아의 활약으로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한 전남은 12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최하위 안산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4연승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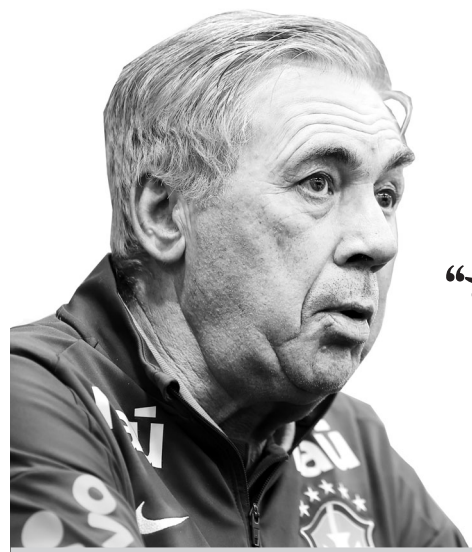
‘K리그1 파이널B 추락’ 울산, 신태용 감독과 두 달 만에 결별

노상래 유소년 디렉터 감독 대행

프로축구 K리그1 파이널B로 추락한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소방수’로 투입했던 신태용 감독과도 결국 결별했다. 울산 구단은 9일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한가지로 성적 부진에 몰려났던 김판곤 감독의 뒤를 이어 8월 초 울산 지휘봉을 잡았던 신태용 감독은 두 달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2017~2018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지휘했고,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을 이끌었던 신태용 감독은 8월 초 당시 K리그1 7위에 머물러 있던 울산의 위기 탈출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낙점된 바 있다. 공식전 11경기 무승의 부진에 허덕였던 울산은 신태용 감독이 처음으로 이끈 첫 경기인 8월 9일 제주와의 K리그1 25라운드에서 1-0으로 승리하며 희망을 보는 듯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는 1승 1무로 무난한 초반 성적을 내고 있으나 K리그1에서는 제주전 이후 7경기 무승(3무 4패)이 이어지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5일 김천상무와의 32라운드에서 0-3으로

완패하며 상·하위 스플릿으로 나뉘 경쟁하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파이널B가 확정되자 울산 구단은 결국 신태용 감독과의 조기 결별을 결정했다. 2022년과 2023년, 지난해까지 K리그1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울산은 2015년(최종 7위) 이후 10년 만에 파이널B로 추락했다. 현재 순위는 12개 팀 중 10위(승점 37)로, 강등권에 처져 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오는 18일 광주와의 리그 33라운드부터는 노상래 유소년 디렉터가 감독 대행으로 울산을 이끈다. 한편 울산의 김광국 대표이사도 성적 부진의 책임으로 퇴진했다. /연합뉴스



“한국 역습·압박 경계”

안첼로티 브라질 감독 출사표
홍명보호, 오늘 20시 친선경기

브라질 축구대표팀을 지휘하는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66·이탈리아) 감독이 한국 축구는 압박과 역습이 능하다면서 맞대결을 기대했다. 브라질 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친선경기를 치른다.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하루 전날인 9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과 경기는 물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브라질 대표팀의 준비 상황 등을 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이번 아시아 원정에서 2승은 당연한 목표”라면서도 “하지만 아시아 국가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큰 경험이다. 월드컵에서도 만날 수 있어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이번 원정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표팀은 한국과 경기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14일 도쿄에서 일본 대표팀과도 맞붙는다. 한국은 브라질과 역대 8차례 맞붙어 1승 7패로 절대적인 열세다. 하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은 강도가 매우 높다. 트랜지션도 매우 빠르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중요하고 위협적인 선수라는 것은 당연히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비 압박도 좋고 역습도 잘 한다”면서 “이번 경기가 우리에게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맞설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6월 파라과이(1-0 승), 9월 칠레(3-0 승)와 치른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면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AC 밀란(이탈리아), 첼시(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등 빅리그 명문 클럽을 이끈 세계적인 지도자다. 하지만 브라질 대표팀을 지휘한 지는 이제 3개월이 지났다. 안첼로티 감독 부임 후 브라질은 6월 에콰도르전을 시작으로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훈련한 시간이 짧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자름길은 없다. 경기 전라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라며 “브라질의 목표는 명확하다. (월드컵) 챔피언이 되는 것”이라고 힘써 말했다. 브라질은 월드컵 최다(5회) 우승국이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우승 소식이 끊겼다. /연합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올해도 추석 모래판 평정

2년 연속 백두장사·통산 16번째 꽃가마…최정만 23번째 금강장사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풍성한 추석을 보냈다. ‘씨름 괴물’ 김민재가 2년 연속 추석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장사에 올랐다. 최정만은 통산 23번째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지난 8일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판 3승제)에서 백원종과의 ‘집안 싸움’ 끝에 3-0 승리를 거두고, 황금 황소 트로피를 차지했다. 앞서 8장에서 김진(중평군청), 4장에서 서남근(수원특례시청)을 만나 각각 2-0의 승리를 거둔 김민재는 결승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팀 동료 백원종을 만났다. 첫판에서 밀어치기로 기선을 제압한 김민재는 이어 들배기기로 연달아 두 판을 가져가면서 지난

해 추석에 이어 다시 또 꽃가마를 탔다. 이번 승리로 그는 통산 16번째(백두장사 14회, 천하장사 2회) 우승을 이뤘다. 최정만은 금강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최정만은 앞서 열린 금강급(90kg 이하) 결정전에서 김기수(수원특례시청)를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밀어치기로 첫 판을 내준 최정만은 두 번째 판을 잡체기로 가져왔다. 이어 두 사람은 앞무릎치기와 뿌려치기로 기싸움을 벌이면서 마지막 승부에 나섰다. 최정만은 5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로 승리를 확정하면서 통산 23번째 금강급 우승을 이뤘다. 또 영암군민속씨름단 차민수는 한라급(105kg 이하)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8일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한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장사인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즐거움

문화산책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